

음악의 체화 과정 탐구

조준희* 한양대학교

초록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의 음악 체화 과정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문헌적, 사례적으로 탐구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움직임 형성을 본질적으로 이끄는 음악의 유도적 체화를 통해, 소리 및 동작의 질감과 연결성을 조율한다. 둘째, 음악적 리듬이 시각적으로 변환되는 음악의 전시적 체화를 통해, 소리 및 동작의 명료성과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셋째, 음악의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조정하는 음악의 즉흥적 체화를 통해, 섬세한 표현의 다양성을 확장한다. 넷째, 유도적 관점과 전시적 관점, 즉흥적 관점은 음악의 체화 과정에서 긴밀히 작용하여 예술적 메커니즘의 본질을 드러낸다. 음악과 무용의 체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음악의 예술적 표현과 신체 움직임 간의 상호작용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음악과 무용, 음악의 체화, 리듬 해석, 유도적 관점, 전시적 관점, 즉흥적 관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과 무용은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감정, 의미, 메시지를 표현하는 분야로서, 음악을 체화하여 예술적 본질을 형성하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이러한 체화 과정은 단순히 음악적 시간 구조를 따르는 것을 넘어, 신체 움직임을 통해 음악이 예술적 표현으로 전환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Godøy와 Leman(2010)은 음악적 리듬을 "청각적 경험을 시각적 표현으로 확장하는 핵심적인 매개체"로 정의하며, 음악적 리듬과 신체 움직임 간의 상호작용이 예술적 의도와 감정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음악이 단순히 시간 구분의 도구가 아니라 신체적 표현을 통해 예술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가 음악적 리듬을 체화하는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David Huron(2006)은 "청각적 패턴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연주자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표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설명하며, 음악 전공자들의 움직임이 리듬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방식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Susan Leigh Foster(2010)는 "신체를 통해 리듬의 감각과 에너지가 예술적으로 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무용 전공자가 리듬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활용해 감각적으로 내면화하고 즉흥적으로 창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논의는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가 음악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두 예술 분야가 음악적 리듬을 체화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선행 이론과의 합치를 통해 음악이 신체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두 분야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의 체화 과정 탐구를 통해, 음악과 무용 간의 협력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무용 분야의 창작 및 교육 현장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실용무용학과 겸임교수, hyu680384@hanyang.ac.kr

있는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음악의 체화 과정을 알아보고자,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순차적으로 탐구한다.

첫째, 음악 전공자는 6박자 지휘를 하며 4박자 노래를 부를 때 어떠한 움직임 특성을 보이는가?

음악 전공자는 박자와 리듬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신체 움직임을 통해 청각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동시에 수행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이 과정에서 박자는 소리를 내기 위한 시간적 약속이며, 리듬은 그 시간안의 구조물이며, 신체 움직임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박자와 리듬의 흐름과 구조적 신체 표현에 능숙한 음악 전공자가 박자에 따라 움직임을 조정하는 방식을 탐구하여, 음악적 구조와 움직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상이한 음악 구조는 무용 전공자들의 점프 동작 표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같은 템포이지만 음악의 구조가 상이한 두 곡의 음악에 무용 전공자들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동작의 형태, 질감, 속도, 강약 등을 재구성하는지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무용 전공자들은 상반된 리듬 구조의 음악을 경험하게 되고, 무용수의 음악적 해석이 신체적 움직임과 표현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탐구한다.

셋째, 음악의 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 움직임은 어떠한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가 음악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 드러내는 표현방식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음악이 신체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체화 과정이 어떠한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로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각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공자들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1) 음악 전공자

이 연구의 음악 전공 참여자는 전공 경력 15년 이상으로 음악의 리듬과 박자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실기 및 이론적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연주자 총 14명이다. 이들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악기 전공별로 리듬과 박자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미묘한 차이를 포괄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음악적 개념과 경험을 분석할 수 있다.

2) 무용 전공자

이 연구의 무용 전공 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최소 4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보유한 자

들로, 발레 동작과 음악적 리듬 간의 상호작용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총 33명이다. 무용 전공 참여자 중에는 경력이 25년 이상인 전문 무용수도 포함되어 있어 연구의 신뢰를 높였다.

2.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음악 전공자에게 4박자 노래(동요: 고향의봄)를 끝까지 부르며 16마디 동안 6박자의 지휘 수행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음악 전공자는 노래와 지휘의 상이한 박자 구조를 경험하고, 음악 조건에 따른 움직임 유도성에 대한 언어 표현적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무용 전공자에게는 동일한 템포(100 BPM) 두 곡(4분의 2박자 음악 A와 8분의 6박자 음악 B)을 제시하고, 발레 스몰점프 동작의 비교 수행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무용 전공자는 두 음악의 상이한 박자 구조를 경험하고, 음악 조건에 따른 움직임 유도성에 대한 언어 표현적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과 신체반응은 개별 심층 인터뷰와 실험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두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존 학자들의 선행 연구와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과로 도출되었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실험적 관찰과 분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기존 이론과 연결하여 규명한 혼합 연구 방법(mixed methods approach)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실험 관찰에서 나타난 언어적 표현과 신체적 반응을 체계적으로 코딩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 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전공 집단의 주요개념 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인터뷰와 관찰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요 패턴을 식별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박자 구조, 리듬의 강약, 아티큘레이션 등 음악적 조건이 신체 움직임의 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각 관점별 핵심 패턴을 구체화하였다.

셋째, 맥락적 해석(contextual interpretation)을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적 배경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해석하였다. 음악과 무용 전공자의 체화 과정은 각자의 예술적 경험과 실천을 반영하므로, 신체적 표현이 음악에 의해 조율되는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합의(theoretical convergence)를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선행된 논의와의 접점을 찾아 심층 탐구의 신뢰를 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 이론 간의 합의를 모색함으로써 기존의 학문적 논의와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음악 전공자는 6박자 지휘를 하며 4박자 노래를 부를 때 어떠한 움직임 특성을 보이는가?

음악은 연주자에게 단순한 청각적 표현의 매개체를 넘어 신체적 움직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연주자들은 손가락과 상지의 섬세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신을 사용하여 음악을 표현하며, 이는 움직임을 통해 음악적 감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Hanna(1988)는 연주자의 움직임은 "음악적 표현을 강화하고, 청각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필수적 요소"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이 아니라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의 빠른 움직임으로 세분화된 리듬 구조를 구현하거나 첼리스트가 전신의 움직임을 통해 리듬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음악적 감각과 신체적 표현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음악 전공자들 또한 음악적 구조가 신체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오랜 시간 무수히 다양한 음악들의 박자 구조를 경험하고 해석하며 반응한 음악 전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4박자 동요와 6박자 지휘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자 구조의 상이함으로 인해 다수 참여자의 신체 움직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관찰된 주요 사례와 참여자들의 응답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항목들의 사례 예시 및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움직임 조정의 어려움

이 항목은 이 연구의 수행 과제를 실행하면서 나타난 연주자의 신체적·인지적 분리의 어려움을 중점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지휘와 노래라는 두 가지 과제가 요구하는 리듬적 동작이 서로 다른 패턴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연주자는 이를 조화롭게 수행하려다 인지적 과부하나 운동 수행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아래의 두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인지적 간섭: 하나의 리듬을 유지하려는 신체 동작이 다른 리듬적 과제를 방해하면서 연주자의 주의 집중력과 수행 작업의 기억 체계를 과도하게 소모한다.
- 움직임 동기화의 자연적 경향: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악적 리듬에 신체를 동기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서로 다른 리듬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연주자는 손의 움직임과 노래의 박자를 분리하려다 실패하거나, 하나의 리듬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 사례 1: 한 연주자는 "움직이는 손과 생각하는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며, 두 활동이 각각 별개의 리듬적 요구를 가질 때 이를 동기화하는 데 실패했음을 표현했다. 특히 손이 6박자 지휘를 유지하려다 결국 4박자 노래의 리듬을 따라가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는 신체 동작이 음악적 리듬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본능적 경향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신체 움직임 제어의 실패가 음악의 강력한 유도 효과와 맞물려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 사례 2: 또 다른 참여자는 "박자의 상이함으로 인해 손이 멈추거나, 노래가 끊기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휘와 노래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박자 구조의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두 과제의 동기화 실패가 동작 중단과 리듬적 혼란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인지적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해석하자면, 지휘와 노래는 각각 다른 박자 구조적 정보 처리를 요구하며, 이를 병렬적으로 수행하려면 작업 기억(working memory)과 주의 집중 능력이 동시에 동원된다. 그러나 인간의 작업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자의 구조적 불일치 상황에서 인지적 과부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체 동

작이 실패하거나 단순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운동학적 관점에서도 신체는 자연스럽게 음악에 동기화되려는 경향이 있어, 서로 다른 리듬적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초래함이 확인된다. 이는 손의 움직임과 노래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결국 보다 익숙한 쪽으로 돌아가려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2) 박자의 혼동

이 항목은 리듬적 불일치가 연주자의 신체 움직임과 인지적 리듬 감각에 미치는 혼란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4박자 노래와 6박자 지휘라는 두 개의 요구가 서로 상충되면서, 연주자가 박자를 정확히 유지하거나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분석한다. 이러한 박자 간의 혼란은 인지적 간섭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리듬 동화 경향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아래의 두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리듬 통합 현상: 두 박자가 신체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인지적 부조화: 머릿속에서 두 리듬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신체 동작에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연주자는 손의 움직임과 노래의 박자에 혼란을 느끼고 박자를 분리하기 위한 의식적인 특이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

- 사례 1: 한 연주자는 “6박자 지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4박자 리듬이 흐르고 있어 혼란스러웠다”고 답했다. 이는 인지적으로 4박자의 리듬이 더 강하게 남아, 신체적으로는 6박자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충돌한 결과다. 또한 고개를 가웃거리거나 눈을 치켜뜨는 등의 비언어적 특이 움직임을 동반했는데, 이는 박자 구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으로 해석된다.
- 사례 2: 또 다른 연주자는 “지휘를 하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4박자의 첫 박에 맞춰 움직이려고 했다”며, “6박자 리듬을 따라가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가려는 신체의 자연적 반응과 의도적인 조정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 사례 3: 다른 참여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이 노래의 리듬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말하며, 6박자 지휘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음을 언급했다. 이는 노래의 박자구조가 손의 움직임에 강한 유도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음악의 본질적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음악의 구조는 신체 움직임에 강력한 동화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더 익숙하고 단순한 리듬(4박자)이 더 복잡한 리듬(6박자)보다 우위를 점하며 신체 반응을 이끌었다. 인지-운동 통합의 한계에 있어서도 인간은 하나의 음악적 패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며, 두 리듬을 분리하는 과정은 신체와 인지 자원 모두에서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음악의 유도 효과

이 항목은 음악적 리듬이 연주자의 신체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음악의 리듬이 단순히 청각적 자극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움직임의 방향성과 패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

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려움은 아래의 두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음악의 자동적 동기화: 음악은 신체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동기화시키며, 이는 연주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 음악 기반의 움직임 제어: 음악은 신체 동작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경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연주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움직임을 수행하게 되며 본인 의지와 다르게 음악에 통제되고 유도되었다.

- 사례 1: 한 참여자는 "손의 움직임이 노래 박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도되었다"고 말하며, 6박자 지휘를 시도하면서도 손이 4박자 움직임으로 동화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음악이 신체의 움직임 패턴을 지배하며, 본능적으로 두 박자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 사례 2: 또 다른 참여자는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하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음악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며, 6박자 지휘가 거의 불가능했음을 흥미롭게 여겼다. 이는 음악구조가 단순한 청각적 자극만이 아닌, 연주자의 움직임을 본질적으로 통제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 사례 3: 또 다른 참여자는 "노래는 4박자로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손이 자꾸 노래의 박자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표정도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참여자는 음악의 유도 효과가 표정, 자세 등 신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며, 음악과 신체 움직임의 본능적 연결성을 강조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음악 리듬은 뇌의 운동 중추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신체 움직임의 패턴을 유도하는 강력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이는 연주자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이 리듬에 동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행동학적 관점에서도 음악적 자극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신체적 반응을 끌어내는 감각-운동적 체험을 제공한다. 이처럼 연주자의 움직임 패턴의 상이함이 음악의 구조적 영향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4) 보완적 신체 움직임

이 항목은 연주자가 리듬적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취하는 신체적 보완 반응과 그 한계를 중점으로 구분되었다. 박자 간의 충돌이 극복되지 않을 경우, 연주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완화하려는 행동을 보이며, 이는 때로 신체적 긴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아래의 두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본능적 적응 반응: 박자 간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주자는 고개 돌리기, 시선 회피 등의 보완적 동작을 취한다.
- 음악의 구조적 상충의 신체화: 박자 간 불일치가 장시간 지속되면, 연주자의 신체 전반에 긴장을 유발하며,

이는 동작의 자연스러움을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연주자는 음악의 구조적 상층을 보완하고자 각자 나름의 의식적 노력으로 신체화 과정을 거쳐 수행과제를 성공시켰다.

- 사례 1: 한 연주자는 "박자 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박자의 혼란을 완화하려는 본능적 반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박자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이는 비언어적 신체 움직임이 리듬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례 2: 또 다른 참여자는 "손의 움직임을 억지로 조정하려다 보니 몸 전체가 뻣뻣하게 긴장되었다"고 답하며, 박자 간 불일치가 단순히 손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신체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언급했다. 이는 리듬적 갈등이 신체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유연성을 저해함을 보여준다.

심리적 관점에서 음악 구조의 불일치는 연주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신체적 긴장으로 표출된다. 연주자는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완적 움직임을 시도하지만, 이는 때로 역효과를 낳는다. 운동학적 관점에서도 박자 간의 구조적 갈등은 신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연주자의 움직임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네 개 항목의 해석을 통해 박자의 흐름은 신체 움직임을 유도하고 패턴을 형성하며, 혼동의 상황에서 보완을 위해 움직임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의 구조는 신체 움직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음악적 표현을 강화하고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2-1. 상이한 음악 구조는 무용 전공자들의 점프 동작 표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음악의 박자와 리듬 구조는 무용 동작의 형성과 표현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무용수의 신체적 움직임과 감각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4분의 2박자(음악 A)와 8분의 6박자(음악 B)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템포(100BPM)임에도 동작의 속도, 체공 시간, 무게감각, 연결성 등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두 음악에 대한 무용수들의 동작 반응 및 변화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음악의 리듬 구조와 무용 표현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이 동작의 속도에 일으킨 변화

음악 A와 B의 상이한 박자 구조는 무용수들의 동작 반응 속도와 리듬 해석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각 박자의 특징은 동작의 수행 과정에 있어 무용수들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며, 그 결과는 무용수들의 음악적 선호 경향으로도 나타났다.

① 4분의 2박자(음악 A)

음악 A는 빠르고 명확하게 흘러가는 리듬이 특징으로, 동작 수행 과정에서 역동적이고 순발력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리듬은 무용수들에게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준비 시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

였다.

우선, 음악 A의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정O만(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박사과정)은 “동작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듯한” 장점을 언급하며, 음악 A가 무용수들에게 집중력을 높이고 동작 수행을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동작의 정확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군무와 같은 경우에서 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음악 A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박O비(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졸업)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음악 A가 빨리에와 같은 준비 동작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해, “발바닥을 데미로 대충 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준비 과정의 부족이 동작 수행의 안정성과 체공 시간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김O우(전 유니버설 발레단 단원)는 음악 A에서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고 늦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세분화된 리듬 구조가 박자 감각을 방해하고 동작 수행의 자연스러움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② 8분의 6박자(음악 B)

음악 B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리듬을 통해 동작 준비와 수행 과정에서 무용수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리듬은 조급함을 줄이고, 동작의 연결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추O임(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재학)은 음악 B에 대해 “팡르베와 같은 도약 동작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음악 B가 무용수들에게 조급함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의견은 동작 준비 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이 수행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김O우(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재학)는 음악 B가 “박자를 딱딱 잘 맞출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박자 감각을 강화하고 동작 수행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음악 B에도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느린 리듬은 빠르고 역동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경우, 즉 강렬한 템포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동작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동작의 긴장감이나 강렬한 표현을 선호하는 무용수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2) 음악이 동작의 체공시간에 일으킨 변화

음악의 리듬 구조는 도약 동작에서 무용수들의 체공 시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자의 특성에 따라 체공 시간의 길이와 안정감은 무용수들의 동작 수행 방식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사례 분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① 4분의 2박자(음악 A)

음악 A는 빠르고 명확하게 흘러가는 리듬을 통해 무용수들이 역동적이고 강렬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리듬은 점프 동작의 높이나 체공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박O현(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재학)은 “듣기만 했을 때는 음악 B가 좋았는데, 막상 동작을 뛰어보니 A가 더 좋았다”고 언급하며, 음악 A가 “더 위로 위로 뿔 수 있게끔 해주는” 특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음악 A의 빠른 리듬이 도약 동작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체공 동작에서의 역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음악 A는 도약 준비 과정에서 긴박함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홍O리(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박사과정)는 “음악 A는 너무 조급해서 뿔 수가 없다”고 언급하며, 도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빠른 박자가 체공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8분의 6박자(음악 B)

음악 B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리듬을 통해 도약 동작 전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체공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무용수들에게 도약 동작에서의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균형을 동시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O원(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재학)은 “땅르베를 땄 때 점프가 더 높아지고, 발 끝의 포인을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음악 B의 여유로운 리듬이 체공 시간의 연장과 표현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점프 동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데 음악 B가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정O만(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박사과정)은 “레벨이 낮을수록 음악 B가 좋다”며, 음악 B가 제공하는 “딱 눌러주는 느낌”이 무용수들이 안정적으로 체공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평가했다.

홍O리 역시 음악 B가 “뛰는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언급하며, 호흡과 악센트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통해 점프 동작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3) 음악이 동작의 무게 감각에 일으킨 변화

리듬의 강약은 무용 동작에서 에너지의 분배와 표현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음악 A와 B의 리듬 구조적 차이는 무용수들의 무게 감각과 동작 수행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4분의 2박자(음악 A)

음악 A는 빠르고 명확하게 흘러가는 강약 구조를 통해 경쾌하고 가벼운 무게 감각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동작의 긴장감과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때로는 무게감 있는 동작 표현에서는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O원(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재학)은 음악 A에 대해 “음악 B보다 A가 더 가볍다”며, 음악 A가 가벼운 동작과 빠른 에너지 전환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음악 A가 무용수들에게 강약 패턴을 명확히 전달하며 동작의 추진력과 역동성을 강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김O원은 음악 B를 “좀 쳐지는 느낌”이라고 평가하며, 음악 A가 더 경쾌한 리듬을 제공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O림(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재학) 역시, “춤을 추기엔 음악 A가 더 가벼워요. 통통통통 이런 느낌이 나요. 음악 B는 바닥을 더 오래 누르는 느낌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벼운 A가 더 좋아요.”라고 응답하여 음악이 동작의 무게 감각에 일으키는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② 8분의 6박자(음악 B)

음악 B는 부드럽고 균형 잡힌 강약 구조를 통해 무용수들이 바닥을 더 잘 느끼고, 무게감 있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특징은 체공 준비 과정과 동작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무용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조화를 제공한다.

추O임(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재학)은 음악 B에 대해 “땄 때 바닥을 더 강하게 느끼면서 점프를 잘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음악 B가 무용수들에게 바닥에서의 지지감과 안정적인 준비 시간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도약 동작을 수행할 때 필요한 중심 잡기와 체공 준비를 지원하는 음악 B의 특성을 나타낸다.

최O영(전 국립발레단 주역)은 “음악 B처럼 음가가 많아지면 바닥을 느끼는 강박 시점과 떠오르는 약박 시점 등이 감각적으로 더 잘 느껴진다”고 평가하며, 음악 B가 리듬의 강약 변화를 통해 동작의 세밀한 감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음악 B가 강약의 미세한 조율을 통해 무용수들이 동작의 표현력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박O비(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졸업)는 “음악 B는 뽀리예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동작을 훨씬 잘할 수 있고 쉬워요. 가벼워요”라고 언급하며, 음악 B가 무게감 있는 동작 수행에 적합한 리듬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음악 B는 준비 동작의 안정성과 동작 수행의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지원하는 음악으로 작용했다.

4) 음악이 동작 연결성에 일으킨 변화

리듬의 연속성과 흐름은 무용수들의 동작 간 연결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 A와 B의 박자 구조는 각각 무용수들이 동작을 연결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4분의 2박자(음악 A)

음악 A는 빠르고 명확하게 흘러가는 리듬을 통해 동작 간의 긴밀한 연결성과 역동적인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무용수들이 세분화된 리듬 구조에 맞춰 동작을 즉각적으로 전환하고, 군무와 같은 일관된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조O리(서울 S대학교 발레전공 재학)는 음악 A에 대해 “음이 뭔가 계속 나오니까 뭘 때 신나는 느낌”이라고 언급하며, 음악 A가 제공하는 활력과 탄력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뛰고 뛰고 계속 바로바로 뭘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이며, 빠른 리듬이 동작 간의 연결성과 추진력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음악 A가 군무와 같이 일관된 리듬과 템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음악 A의 빠른 리듬은 동작 준비와 여유로운 연결을 제한할 수 있다. 최O호(광주시립발레단 단원)는 “음악 A는 처음에 들어가기가 바빠요”라고 언급하며, 빠른 박자가 동작 시작과 준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음악 A의 세분화된 리듬이 오히려 동작 전환에서 긴장감을 유발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② 8분의 6박자(음악 B)

음악 B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리듬을 통해 동작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안정적인 흐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리듬 구조는 무용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준비 동작과 전환 동작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O희(국립발레단 단원)는 음악 B에 대해 “뽀리예에서 댄스 시간이 적당하니까 땅르베를 뭘 때도 훨씬 수월했다”고 언급하며, 음악 B가 동작 준비 과정에서의 안정감과 여유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음악 B가 무용수들에게 준비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작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이O훈(전 국립발레단 주역 무용수) “음악 B는 리듬이 길어서 동작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느린 리듬이 동작 수행에서 추가적인 체력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음악 B가 제공하는 여유로움이 역동적이고 긴박한 동작에서는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2. 무용 전공자들은 음악적 표현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구사하는가?

무용 전공자들은 음악적 리듬과 박자를 신체적으로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동작의 성격, 타이밍, 그리고 표현 방식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무용 전공자들이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

하고, 이를 동작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리듬의 속도, 강약, 그리고 분절 구조는 무용수들에게 동작의 완성도와 움직임 질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리듬의 감각화

무용수들은 리듬을 분석적이거나 전문적인 음악 용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를 “가볍다,” “무겁다” 같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언어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리듬의 물리적 특성과 신체의 움직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리듬의 질감을 신체 감각적으로 표현한 사례 1 : “가볍다”

한 무용수는 스몰 점프 동작에 대해 “음악 A는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점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강박이 딱딱 잡히니까 동작이 힘들이지 않고 나왔어요.” 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표현은 4분의 2박자 음악 A가 음악 B에 비해 더 높은 영역에서 연주되어, 보다 경쾌하게 표현된 리듬이 점프 동작의 탄력을 강화하고, 신체적 반응을 쉽게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 리듬의 질감을 신체 감각적으로 표현한 사례 2 : “무겁다”

또 다른 무용수는 음악 B를 들으며 이렇게 표현했다. “리듬이 무거운 느낌이라 몸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눌리는 게 느껴져요. 뿌리에에서 중심을 잡고 도약하기 더 쉬웠어요.” 여기서 무거운 리듬이란 표현은 8분의 6박자인 3분절 음악의 시간차가 주는 리듬의 상이성에서 기인한 표현으로 해석되며, 음악적인 미묘한 시간 차이가 무용수에게 안정성과 중력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리듬의 질감을 신체 감각적으로 표현한 사례 3: “눌린다”

이 표현은 음악 B에 대해 말한 한 무용수의 응답이다. “첫 박이 눌리는 느낌이라 뿌리를 더 깊게 가져갈 시간이 생겨요. 도약 전에 확실히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사례는 붓점 리듬(dotted rhythm)으로 인해 리듬의 앞부분이 상대적으로 길어짐으로써 무용 동작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2) 리듬의 은유적 표현

리듬은 무용수의 동작 수행과 연결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리듬의 특성과 템포에 따라 무용수의 신체 반응과 표현이 달라진다. 무용수들은 리듬을 단순히 청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체 감각과 동작으로 통합하여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한다. 특히, 리듬의 성격(경쾌함, 부드러움, 무게감)은 동작의 질감과 조화를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므로 무용수들이 음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 리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례 1: “통통 튀다”

음악 A의 경쾌한 리듬에 대해 한 무용수는 이렇게 응답했다. “음악이 통통 튀는 느낌이라 발목에서 바로 반응이 와요. 스몰 점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돼요.” 이는 스타카토(stacato)가 사용된 빠른 리듬 구성의 진행이 무용수의 하지 탄력을 증가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 리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례 2: “흐르다”

부드러운 리듬에 대해 다른 무용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리듬이 물 흐르듯 이어지니까 동작이 끊기지 않고 연결

돼요. 포르 드 브라에서 더 유연함을 느꼈어요.” 이는 음악의 슬러(slur)가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리듬을 형성하여 동작의 조화를 도모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 리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례 3 : “쪼갠다”

한 무용수는 음악 A의 빠른 리듬을 이렇게 설명했다. “리듬이 잘게 쪼개져서 발이 더 바빠져요. 셋잇단음표처럼 잘게 나뉘지니까 동작 전환도 빨라져요.” 이 사례는 16분음표가 사용되어 세분화된 리듬이 발 동작의 정교함과 순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 리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례 4 : “쫄쫄하다”

또 다른 무용수는 음악 A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리듬이 쫄쫄하게 느껴져서 발 동작도 더 빠르고 쫄쫄하게 이어졌어요. 긴장감 있게 음악이 딱 맞았죠.” 음악 B에 비해 시간적으로 짧고 촘촘한 16분음표가 연속적으로 포함된 음악 A가 동작의 정확성과 긴장감을 더한 사례다.

3) 의성어 및 의태어 기반 표현

의성어 및 의태어는 무용수들이 리듬의 특성을 신체적 감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직관적인 표현 방식이다. 이는 리듬의 질감, 속도, 강약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며, 동작의 조율과 감정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무용수들은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음악적 리듬과 신체 동작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묘사하였으며, 이는 음악이 동작의 강약, 에너지, 안정성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성어 및 의태어 기반 표현의 사례 1: “딴-딴”

음악 B의 명확한 반복 리듬에 대해 한 무용수는 이렇게 말했다. “딴-딴 리듬에 맞춰 손과 발의 강약을 조절했어요. 명확해서 움직임이 더 정리됐어요.” 이는 같은 음표 구성으로 반복된 리듬이 동작의 강약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의성어 및 의태어 기반 표현의 사례 2 : “통통”

무용수들은 음악 A의 리듬에 대해 유난히 “통통”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 했다. 앞선 분석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다른 한 무용수 역시 이렇게 설명했다. “통통 튀는 소리가 들리면 몸도 강하게 반응하게 돼요. 도약 동작에서 더 에너지가 생겼어요.” 이 역시 앞서 말했듯이 스타카토와 붓점 리듬이 사용된 빠른 리듬 구성의 진행이 무용수의 동작에 활력을 부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의성어 및 의태어 기반 표현의 사례 3 : “꾸욱”

베이스가 강조된 음악 B에 대해서 또 다른 무용수는 이렇게 말했다. “꾸욱 눌리는 리듬이 몸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바닥에 발이 단단히 닿는 느낌이에요.” 음악 B에 사용된 셋잇단음표(triplet) 중 3분의 2의 시간적 여유가 주는 묵직한 리듬이 동작의 안정성과 중심을 강화했다는 표현을 보여준다.

3. 음악의 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 움직임은 어떠한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1과 2를 통해 관찰한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들의 응답은 음악적 리듬과 구조를 신체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체화 과정에 있어 세 가지 주요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는 유도적 관점, 전시적 관점, 즉흥적 관

점으로,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음악적 체화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드러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음악적 체화가 단순히 신체 움직임의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리듬과 신체를 통해 다층적으로 해석되고 표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두 전공 집단 모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유도적 관점은 음악이 체화 과정에서 신체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원리에 타당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음악과 신체적 표현이 결합되어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유도적 관점의 체화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들의 체화 과정에서 음악이 신체 움직임의 변화를 강제로 유도하는 힘이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음악적 리듬, 강약, 그리고 템포 변화가 단순히 동작을 지원하거나 변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움직임을 본질적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악의 이러한 특성은 연주자와 무용수가 무의식중에도 체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도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도적 관점은 음악적 리듬이 신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동기화 과정을 의미한다. 음악의 리듬과 강약 구조는 신체의 자동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유발하며, 이러한 반응은 움직임의 패턴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음악은 단순히 신체 움직임을 따르게 하는 외부적 자극에 그치지 않고, 무의식적 신체 반응을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음악의 유도적 관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가. 음악 전공자의 유도적 관점

음악 전공자들은 악기 연주나 지휘 과정에서 음악의 리듬과 템포 변화가 손과 상체의 움직임을 본질적으로 조정하며, 때로는 신체적 긴장이나 부조화를 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음악적 리듬이 단순히 연주와 동작의 배경이 아니라, 신체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실험 참여자는 "6박자의 리듬에 맞춰 지휘하려 했지만, 노래의 4박자 리듬에 손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응답하며, 음악 리듬이 신체의 의도적 조정과 상관없이 움직임을 강제로 동기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는 리듬적 간극이 신체적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율하려는 강력한 유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지휘자는 결국 리듬의 강박이 손과 몸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며, 음악적 리듬이 지휘자의 동작 타이밍과 강약을 무의식적으로 조정하는 힘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음악 리듬이 지휘자의 신체적 반응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움직임의 본질적 패턴을 유도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도 자서전에서 "몸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음악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고, 늘어난 해석의 범위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몸의 움직임과 소리를 만들게 되기도 한다."고 말해, 음악적 리듬과 해석이 연주자의 신체를 통해 좋은 연주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음악이 단순히 연주 보조 역할을 넘어서 신체의 움직임을 본질적으로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도 음악의 유도적 역할은 명확히 설명된다. Huron(2006)은 "음악적 리듬은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동반하며, 리듬의 강도와 속도가 신체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리듬이 운동 뉴런과 근육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신체 반응이 리듬적 자극에 자동으로 적응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의 지휘 실험에서도 음악의 템포와 리듬 변화가 손의 움직임을 강제로 유도한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음악이 6박자 지휘를 강요하면서도, 몸이 계속 4박자 노래에 동화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 리듬이 신체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용하며, 의도적 움직임을 초월해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음악 전공자들의 체화 과정에서 음악적 리듬은 신체의 방향성과 세부 동작을 유도하며, 음악과 신체가 본질적으로 동기화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음악적 체화의 유도적 관점이 신경생리학적 및 심리학적 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무용 전공자의 유도적 관점

무용 전공자들 역시 음악의 리듬과 템포 변화가 신체의 방향, 속도, 질감을 강제로 유도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특히, 음악의 강박과 시간적 구조는 무용수들에게 동작의 시작과 끝, 연결을 본질적으로 형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음악적 리듬이 단순히 동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신체의 움직임을 결정적으로 형성하고 변형하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실험 참여자는 "음악 A에서 리듬이 몸을 가볍게 만들어 점프 동작이 더 탄력적으로 느껴졌다"고 응답하며, 리듬의 가벼움이 동작의 에너지를 유도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음악 B에 대해서는 "리듬이 무겁게 느껴져, 플리에와 같은 준비 동작에서 몸이 더 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음악적 리듬이 신체의 무게 중심과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무용수는 "음악 B가 느린 리듬을 제공함으로써 체공 시간을 길게 만들어 동작의 표현력을 강화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리듬적 유도는 동작의 질감을 변형하고, 신체를 리듬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정하게 만든다. 음악의 강박이 강해질수록 동작의 시작과 끝이 더 명확해지고, 반대로 강박이 부드러워질수록 동작이 부드럽고 연결성 있게 표현되었다는 응답도 다수 관찰되었다.

Frleigh(1987)는 "음악은 무용수의 신체를 특정 방향과 속도로 유도하는 강력한 시간적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음악이 무용 동작의 본질적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음악적 리듬이 단순히 감각적 배경이 아닌, 동작의 시각적 형식과 질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 다른 무용수는 "음악 B가 점프 후 체공 시간을 길게 느끼게 해, 발끝의 포인트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리듬이 동작의 완성도와 표현을 조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 실험 참여자는 "음악 A에서 리듬의 강박이 강해지면, 동작의 시작과 끝이 더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음악이 동작의 시각적 구조를 유도한다고 응답하였다.

Susan Leigh Foster(2010)는 "리듬은 무용수의 신체를 공간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며, 신체적 경험과 음악적 흐름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설명하며, 리듬이 무용수의 신체적 반응과 동작 패턴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스타카토 리듬의 음악에서는 빠른 점프 동작이 유도되었고, 레가토 리듬의 음악에서는 동작 간 연결성이 부드럽게 형성되었다.

한 무용수는 "음악 B에서 제공되는 긴 리듬이 플리에를 더 깊게 가져가게 하고, 동작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유도적 관점은 리듬이 무용수에게 신체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동작의 흐름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용 전공자들이 경험한 리듬의 유도적 특성은 음악의 흐름이 신체의 움직임을 필연적으로 형성하고 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음악과 신체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 두 전공자 집단의 유도적 관점 비교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는 모두 음악적 리듬이 신체 움직임을 강제로 유도하는 힘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이 이를 체감하는 방식과 초점은 각기 달랐다.

음악 전공자는 악기 연주와 지휘 과정에서 리듬의 강박과 템포 변화가 손과 상지의 세밀한 움직임을 조정하고, 음악적 메시지를 청중에게 정확히 전달하도록 이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리듬의 유도적 힘은 신체적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통제하며, 연주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손과 팔이 리듬에 맞춰 반응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작용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반응은 음악적 흐름이 단순한 청각적 자극을 넘어 신체적 행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무용 전공자는 음악이 신체 전체의 방향성과 질감을 형성하며, 동작의 속도와 연결성을 본질적으로 유도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무용수들은 음악의 리듬이 단순히 동작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동작의 에너지와 표현 방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리듬의 강박과 시간적 구조가 동작의 시작과 끝을 형성하며, 신체 움직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의 전문적 요구와 역할에서 비롯된다. 음악 전공자는 리듬에 따라 신체의 세밀한 조율과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면, 무용 전공자는 리듬의 흐름과 질감을 신체 전체로 내면화하며, 이를 통해 동작의 예술적 표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두 집단 모두 음악적 리듬이 신체 움직임을 강제로 유도하는 본질적 요소라는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였지만, 음악 전공자는 리듬의 세밀한 조정과 메시지 전달에, 무용 전공자는 리듬의 흐름과 에너지 표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은 음악과 신체 움직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음악적 리듬이 인간의 신체적 표현을 형성하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2) 전시적 관점의 체화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들의 체화과정에서 음악적 리듬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설계된 동작이 드러났다. 이는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가 각각의 역할과 표현 목적에 따라 움직임을 조율하며 음악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전시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시적 관점은 음악적 리듬과 구조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계획된 움직임에 주목한다. 이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음악적 메시지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며, 관객이나 청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시적 관점은 음악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리듬의 명확성과 감정적 서사를 전달하려는 의도적 움직임을 포함한다.

가. 음악 전공자의 전시적 관점

음악 전공자들은 음악의 시간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과 팔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조율하며, 이를 통해 청중과 연주 동료들에게 명확한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악기 연주의 움직임은 단순히 음을 생성하는 신체적 활동을 넘어, 리듬의 구조와 음악적 감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Godøy와 Leman(2010)은 "악기 연주 중 신체 움직임은 청각적 경험을 시각적 경험으로 확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연주자가 음악의 강박과 리듬을 몸짓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악기 연주의 움직임은 음악적 메시지를 강화하고, 청중이 리듬과 감정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시적 특성을 내포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피아니스트가 리듬의 강박과 템포 변화를 전달하기 위해 상체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예를 들어, 강박의 순간에 상체를 약간 숙이며 박자를 강조하거나, 부드러운 구간에서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 유연하게 표현하는 행동이 관찰된다. 이는 청중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연주자의 동작을 통해 리듬의 흐름과 음악적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Blom과 Chaplin(1988)은 이러한 움직임을 "음악적 리듬의 시각적 해석 과정"으로 정의하며, 연주자의 몸짓이 리듬적 명확성과 감정적 전달을 동시에 구현하는 예술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첼리스트의 경우, 활을 사용하는 팔의 큰 움직임과 함께 상체가 리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되는 모습은 리듬과 감정을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전시적 관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지휘 실험에서도 박자 구조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손의 움직임을 음악의 강박과 일치 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실험 참여자는 6박자 지휘를 수행하면서 리듬의 시작과 끝을 강조하기 위해 손의 움직임과 팔의 궤적을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손의 각도와 움직임이 리듬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동작을 의도적으로 크게 그리고 천천히 조율했다"고 설명하며, 음악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리듬의 강박과 흐름을 신체적 표현으로 형상화하여 음악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음악 전공자들의 특성에서 발견된, 전시적 관점에서의 체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음악 전공자의 지휘 실험과 음악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음악적 리듬과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음악 전공자들의 전시적 관점의 체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체화는 음악적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중과의 감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의 서사성과 감동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예술적 역할을 한다.

나. 무용 전공자의 전시적 관점

무용 전공자들에게 발끝의 포인트를 잘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악의 리듬과 템포가 점프의 체공 시간과 블리에의 깊이를 조정하며, 이를 통해 동작의 정교함과 시각적 특징을 강조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한 무용수는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높이 뛰어서 발끝의 포인트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죠"라고 설명하며, 체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작의 시각적 세부 표현할 기회가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음악이 단순한 배경이 아닌, 동작을 돋보이게 하는 물리적 프레임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다른 한 무용수 역시 "음악 B에서 좀 더 블리에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점프 높이랑 포인을 보여줄 수 있는... 동작의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언급하며, 음악의 리듬이 점프 동작을 물리적으로 보조하고 표현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무용수 또한 "음악 B가 점프 후 체공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해 발끝의 포인트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응답하며, 음악 B의 느린 리듬 구조가 동작의 시각적 표현을 돋보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체공 시간의 확보와 리듬의 여유로움이 무용수들에게 동작의 세부를 강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리듬과 템포의 변화는 동작의 연결성과 시각적 구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 무용수는 "음악 B는 블리에에서 더 깊게 눌러 준비할 시간을 주어 동작이 매끄럽게 이어졌다"고 응답하며, 리듬의 여유있는 흐름이 동작 전환의 자연스러움을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무용수는 "음악 A는 점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느낌을 주어 경쾌한 동작의 특성을 부각시켰다"고 설명하며, 촘촘한 리듬이 동작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Frleigh(1987)는 "음악은 무용수의 신체를 특정 방향과 속도로 유도하는 시간적 프레임을 제공하며, 이를 통

해 동작이 리듬과 융합된 시각적 메시지로 전달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무용수들의 응답은 리듬이 단순한 보조 요소를 넘어 동작의 시각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주요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Susan Leigh Foster(1986) 역시 "무용에서 리듬은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며, 무용수의 움직임을 통해 리듬적 강약과 질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음악이 동작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음악 A와 B에 대한 무용수들의 선호도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음악 B는 점프 준비 시간과 체공 시간을 늘려 동작의 정교함과 발끝의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반면, 음악 A는 경쾌한 리듬을 통해 동작의 순발력과 생동감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다. 무용 전공자들은 음악의 리듬과 템포를 활용해 자신의 동작을 시각적으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무용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전시적 관점을 체화하고 있었다.

다. 두 전공자 집단의 전시적 관점 비교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는 음악적 리듬과 구조를 신체적으로 체화하여 각자의 예술적 목적에 맞게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과 초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음악을 단순히 청각적인 자극으로 제한하지 않고, 신체 움직임을 통해 감각적 메시지와 서사를 전달하려는 전시적 관점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다.

음악 전공자는 주로 손과 상체의 세밀한 움직임을 통해 음악의 구조적 명확성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악기 연주나 지휘 과정에서 제한된 신체 활용을 통해 리듬의 강약과 템포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손의 움직임이나 활의 각도는 리듬의 강박과 흐름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청중이 음악의 감정적 서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무용 전공자는 전신을 활용하여 음악의 리듬과 흐름을 극대화한다. 점프와 같은 대규모 동작은 음악적 리듬의 강약을 드러내고, 블리에와 체공 시간의 조절을 통해 세부적인 표현을 강조한다. 특히 발끝의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무용 전공자들이 음악의 체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작들은 단순히 리듬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서사적으로 확장하며 예술적 메시지를 풍부하게 전달한다.

종합적으로, 음악 전공자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리듬과 템포의 구조적 명확성을 강조하며 음악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무용 전공자는 신체의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음악의 감정적 서사를 확장하고 강약과 흐름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 모두 음악을 체화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전시적 관점을 공유하면서도, 각 예술 분야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체화 방식과 표현 초점이 다르게 구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악과 신체의 융합은 두 집단 모두에게 중요한 예술적 도구로 작용하며, 각기 다른 제약과 자유를 통해 음악적 리듬과 메시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음악이 단순한 청각적 경험을 넘어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3) 즉흥적 관점의 체화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들의 체화 과정에서 음악적 리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창의적으로 동작을 조율하고 변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표현이 아니라, 리듬의 흐름과 박자 변화에 따라 순간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신체 움직임으로, 음악적 구조를 해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즉흥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흥적 관점은 음악의 흐름과 순간적 변화에 반응하며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구성하는 과정을 강조한

다. 이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적 리듬과 강약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움직임과 표현을 창출하는 체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즉흥적 관점은 음악적 순간성과 신체적 창의성이 결합하여 동작을 형성하고 변형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가. 음악 전공자의 즉흥적 관점

음악 전공자들의 체화 과정은 음악적 순간과 리듬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신체 움직임을 통해 창의적 해석을 표현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Christopher Small(1998)는 "음악은 소리의 창조적 표현뿐만 아니라, 음악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맥락과 감정적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음악적 즉흥은 단순히 연주 기술의 발현이 아니라, 연주자의 신체와 소리가 사회적·감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합적 과정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 전공자들은 리듬의 미세한 변화나 예상치 못한 음악적 흐름에 즉각적으로 신체를 조율하며, 이를 통해 음악적 메시지와 감정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즉흥적 체화를 수행한다.

Paul Berliner(1994)는 재즈 연주의 즉흥성을 분석하며, "즉흥 연주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적 숙련과 순간적인 창의적 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신체적·음악적 협업"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재즈 음악가가 리듬의 예상치 못한 변화를 해석하고, 새로운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창조하며 손과 상체의 움직임을 조화시키는 과정은 즉흥적 체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피아니스트가 리듬의 강약에 따라 손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바이올리니스트가 활의 속도와 압력을 매 연주마다 미세하게 혹은 완전히 다르게 조절하는 것은 음악적 리듬과 감정을 즉흥적으로 체화하는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음악적 리듬은 단순히 정해진 패턴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연주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순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는 "정말 높은 수준에 이른 연주자들의 연주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큰 박은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속박의 밀고 당기기는 자유롭고 조화롭다"고 언급하며, 리듬이 연주자의 즉흥적 판단에 따라 신체 동작의 타이밍과 강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리듬이 단순한 통제가 아닌 창의적 표현과 탐구를 위한 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즉흥적 관점에서는 리듬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음악적 변화에 따라 신체 동작의 세부적 조율과 타이밍이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리듬과 신체 간의 관계가 창의적 해석과 실시간 조정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지휘 실험에서도 박자 구조의 상이함을 타파하기 위하여 손과 상체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조정하려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즉흥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6박자 지휘와 4박자 노래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나타난 움직임의 조율은 계획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리듬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즉흥적 체화의 본질을 보여준다. 한 참여자가 리듬 충돌 상황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라도 손의 6박자 움직임을 유지하려 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단순히 박자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에 그치지 않고, 순간적인 음악적 요구에 따라 신체의 다른 부분을 활용해 리듬 간의 간극을 메우고 음악의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순발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음악 전공자의 지휘 실험과 음악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적 구조를 신체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며 창의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려는 음악 전공자들의 즉흥적 관점의 체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의 체화는 음악과 움직임의 조화를 실시간으로 구현하며, 청중과 소통하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나. 무용 전공자의 즉흥적 관점

무용 전공자 역시 음악과 신체 움직임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으로 체화되며, 리듬의 강약과 흐름에 따라 동작을 즉흥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려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즉흥적 체화 과정은 리듬적 구조와

음악적 감정을 신체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창의적 노력으로 나타나며, 음악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동작과 감정적 서사를 창출한다.

무용 전공자들은 리듬의 차이에 따라 동작의 속도, 질감, 체공 시간, 연결성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즉흥적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4분의 2박자(음악 A)와 8분의 6박자(음악 B)의 상이한 리듬 구조는 무용수들의 점프와 같은 도약 동작에서 동작의 질감과 연결 방식을 변화시켰다. 음악 A에서는 빠른 리듬의 강박을 강조하며 강렬하고 역동적인 동작이 나타난 반면, 음악 B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리듬에 맞춰 준비 동작과 체공 시간이 강조되며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무용수들이 리듬의 속성과 흐름을 즉흥적으로 체화하여 동작의 성격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리듬의 변화와 구조적 특성은 무용수들에게 동작의 조율과 변형을 요구하며, 이는 무용수들이 신체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리듬을 즉흥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든다. 촘촘한 구조의 리듬(음악 A)에서는 점프와 같은 역동적 동작을 강조하며 리듬의 긴장감과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었고, 안정적 구조의 리듬(음악 B)에서는 동작의 멈춤과 연결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감정적 표현과 리듬의 여유로움을 부각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한 무용수는 “음악 A 리듬에서는 점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에너지가 강조된다”고 응답한 반면, 음악 B 리듬에서는 “블리에를 더 깊게 가져갈 수 있어 동작을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즉흥적으로 리듬 해석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짐을 시사 하였다.

무용 전공자들은 리듬의 감각을 단순히 청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신체적으로 내면화하여 동작으로 전환한다. Fraleigh(1987)은 “무용은 단순히 동작의 외적 표현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 리듬과 감정을 통합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리듬이 신체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무용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리듬의 속도와 강약 변화는 무용수들에게 신체적으로 체감되는 질감을 형성하며, 이는 동작의 성격을 즉흥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음악 A에서는 “점프가 위로 뿜 수 있는 탄력을 준다”는 응답이 관찰되었고, 음악 B에서는 “바닥을 더 안정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음악의 해석은 무용수들이 동작을 창의적으로 변형하며 리듬의 시각적 표현을 극대화하려는 즉흥적 체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Susan Foster(2010)는 “즉흥적 움직임은 무용수의 신체가 음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감정적 메시지와 서사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즉흥적 무용이 음악과 동작 간의 긴밀한 대화를 기반으로 발전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샤 그레이엄(Martha Graham, 1991) 역시 “무용수는 음악의 리듬을 통해 느껴지는 질감과 에너지를 즉흥적으로 조율하며, 이를 통해 무용의 감정적 메시지를 확장한다”고 언급하며 리듬의 감각적 특성이 즉흥적 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는 무용수들이 음악적 리듬을 창의적으로 변형하며 감정적 표현을 극대화하는 즉흥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용 전공자들 역시 음악 리듬의 강약과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신체 움직임을 통해 순간적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리듬의 변화에 따라 동작을 즉흥적으로 변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무용 전공자들은 음악적 감정을 신체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즉흥적 목적을 드러낸다. 이는 무용 전공자들이 음악의 흐름과 감정을 체화하여 관객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중요한 표현 방식임을 보여준다.

다. 두 전공자 집단의 즉흥적 관점 비교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는 모두 음악의 리듬과 순간적인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신체 움직임을 통해 창의적 해석과 표현을 만들어내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리듬과 음악적 구조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넘어, 신체를 활용하여 즉흥적으로 변주하고 새로운 표현을 창출하며, 음악적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즉흥적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두 전공자는 즉흥적 체화를 구현하는 방식과 초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피아니스트는 리듬의 강약이나 박자 변환에 따라 손가락의 터치와 상체의 동작을 조화롭게 변형하며, 음악의 구조적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음악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적 메시지를 창조하려는 즉흥적 체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무용 전공자는 전신의 움직임을 통해 즉흥적 체화를 보다 자유롭게 구현한다. 리듬의 강약과 흐름에 따라 동작의 방향, 질감, 속도를 변형하며, 감정적 서사를 즉각적으로 창출한다. 현대무용에서는 특히 불규칙한 리듬이나 예측 불가능한 템포 변화에 따라 동작의 연속성과 변화를 즉흥적으로 조율하며, 리듬의 감정적 흐름을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차이는 음악 전공자가 즉흥적 체화 과정에서 음악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감정을 전달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무용 전공자는 음악의 감정적 해석과 변화를 창의적으로 확장하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비교는 즉흥적 관점에서 두 전공자가 리듬과 신체의 상호작용을 각자의 예술적 특성에 맞게 구현하는 독창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V. 논의

이 연구는 두 전공 집단의 음악 체화 과정을 유도적 관점과 전시적 관점, 즉흥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리듬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음악과 무용의 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학문적 관점을 제시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주안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2>의 세분화

연구문제 2는 무용 전공자들이 음악적 리듬에 어떻게 반응하여 신체적 움직임을 구성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음악에 따른 동작 변화의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무용수들이 음악을 표현하는 집단적 특징이 발견되어, 음악의 체화 과정을 더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음악적 표현 방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문제 2를 두 가지 질문으로 세분화하였다.

2-1에서는 상이한 리듬 구조(4분의 2박자와 8분의 6박자)가 점프와 같은 도약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리듬 구조의 차이가 동작의 속도, 체공 시간, 질감, 연결성 등 다양한 신체적 특성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무용수들이 리듬의 속성과 특성에 따라 즉흥적으로 움직임을 변형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다.

2-2에서는 무용 전공자들이 음악적 표현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통해, 음악의 감각적 특성과 신체적 표현 간의 연결을 탐구하였다. 이는 무용수들이 음악의 리듬을 단순히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감각적으로 내면화하고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드러내며, 체화과정의 심층적 이해를 도왔다.

따라서 연구문제 2를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무용수들의 다양한 신체적 반응과 언어적 표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무용 전공자의 음악 체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2. 세 가지 관점의 결과 도출

음악의 체화 과정을 유도적 관점, 전시적 관점, 즉흥적 관점으로 구분한 이 연구의 결과는, 음악과 신체 움직임 간의 관계를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이해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음악이 신체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며 예술적 메시지를 창출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유도적 관점은, 음악의 조건이 신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대다수의 응답에 주목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들은 음악의 변화에 따라 움직임의 방향과 질감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리듬이 단순히 움직임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신체적 조율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Huron, Fraleigh, Foster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음악과 신체 간의 자동적 조율을 강조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었다.

전시적 관점은 음악을 이용하여 신체 움직임을 보다 정교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 무용 전공자들은 체공 시간을 늘리거나 발끝의 포인트를 강조하는 등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연주자의 움직임에 대한 다수의 연구 사례 또한 관객에게 음악의 흐름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신체 움직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은 Godøy&Leman, Blom&Chaplin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움직임의 시각적 명확성이 예술적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었다.

즉흥적 관점은 음악적 리듬의 변화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유연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지를 중점으로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음악 전공자들은 지휘과정에서 음악적 방해조건에 즉각적으로 적응하며 움직임을 조율하였고, 무용 전공자들 역시 리듬에 따라 동작의 강약과 연결성을 조정하며 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조정했다. 이러한 현상은 Christopher Small, Paul Berliner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음악적 표현의 창의적 역할을 설명한 내용과 일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각각 음악과 신체 움직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서로 보완적으로 체화 과정을 설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도적 관점은 음악이 움직임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전시적 관점은 이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며, 즉흥적 관점은 음악과 움직임의 유연한 조율 과정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 결과의 해석이 음악의 체화 과정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표현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해석의 한계

이 연구는 음악의 체화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 1) 연구 대상의 제한: 참여자가 발레와 클래식 음악 전공자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장르(한국무용, 대중음악 등)에서의 음악 해석 방식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 2) 정성적 분석 중심: 사례 중심의 정성적 접근은 심층적 통찰을 제공하였으나, 정량적 데이터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결과의 일반화에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한다.
- 3) 음악적 다양성 부족: 무용 전공자에게 제시된 음악 구조가 4분의 2박자와 8분의 6박자로 한정되어, 보다 다양한 리듬 형태의 음악과 복합 박자에 대한 움직임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가 음악을 체화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이 과정을 유도적 관점과 전시적 관점, 즉흥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를 통해 두 집단이 음악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체화 과정의 역할과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움직임 형성을 본질적으로 이끄는 음악의 유도적 체화를 통해, 소리 및 동작의 질감과 연결성을 조율한다.

둘째, 음악적 리듬이 시각적으로 변환되는 음악의 전시적 체화를 통해, 소리 및 동작의 명료성과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셋째, 음악의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조정하는 음악의 즉흥적 체화를 통해, 섬세한 표현의 예술성을 도모한다.

넷째, 유도적 관점과 전시적 관점, 즉흥적 관점은 음악의 체화 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작용하여, 작품에 내재된 메시지를 청중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예술적 메커니즘의 본질을 드러낸다.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의 음악 체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함으로써 두 분야 간 협업의 이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박자 구조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예술적 적용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음악의 다층적 기능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예술의 교육 및 창작 가능성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번스타인.(2014). *레너드 번스타인의 음악의 즐거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클래식 해설서의 고전* (김형석 & 오운성, 역). 느낌이 있는 책.
- 조진주.(2021).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음악과 삶*. 아웃사이트.
- Berliner, P.(1994). *Thinking in jazz: The infinite art of improvis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om, L. A., &Chaplin, L. T.(1988). *The moment of movement: Dance improvis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Foster, S. L.(1986). *Reading Dancing: Bodies and Subjects in Contemporary American D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oster, S. L.(2010). *Choreographing Empathy: Kinesthesia in Performance*. London: Routledge.
- Frleigh, S. H.(1987). *Dance and the lived body: A descriptive aesthetic*.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Godøy, R. I., &Leman, M.(2010). *Musical gestures: Sound, movement, and meaning*. Routledge.
- Graham, M.(1991). *Blood memory: An autobiography*. Doubleday.
- Hanna, J. L.(1988). *Dance, sex, and gender: Signs of identity, dominance, defiance, and desi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ron, D.(2006). *Sweet anticipation: Music and the psychology of expectation*. MIT Press.
- Levitin, D. J.(2006). *This is your brain on music: The science of a human obsession*. Dutton.
- McNeill, W. H.(1995). *Keeping together in time: Dance and drill in human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Nettl, B.(2005). *The study of ethnomusicology: Thirty-one issues and concept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Zbikowski, L. M.(2002). *Conceptualizing music: Cognitive structure, theory, and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Inquiry into the Process of Musical Embodiment

Joonhee Cho* Hanyang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explored the process of music embodiment in music and dance practitioners through three perspectives—inductive, performative, and improvisational—are as follows: First, the inductive embodiment of music demonstrates how music inherently guides the formation of bodily movements, coordinating the texture and continuity of sound and motion. Second, the performative embodiment of music highlights the visual transformation of musical rhythm, enhancing the clarity of sound, movements, and the delivery of artistic messages. Third, the improvisational embodiment of music reveals the capacity for real-time adjustment of movements according to musical conditions,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nuanced expressive possibilities. Fourth, the inductive, performative, and improvisational perspectives operate interdependently within the process of music embodiment, revealing the core mechanisms of artistic express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nteraction between musical expression and bodily movements by investigating the processes underlying music and dance embodiment.

Key words : music and dance, music embodiment, rhythm interpretation, inductive perspective, performative perspective, improvisational perspective

논문투고일: 2024.11.30

논문심사일: 2025.01.09

심사완료일: 2025.01.09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Practical Dance,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for Future Talents, Seoul, Republic of Korea.